

오피니언

월/요/광/장

김택민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이지만, 백제를 멸망시킨 나당연합군의 신라군 사령관은 김유신이고, 당군 사령관은 소정방이다. 두 군대는 서기 660년 7월 10일에 백제의 남쪽에서 합류하여 도성인 사비성을 공파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런데 신라군은 황산벌에서 계백 장군이 거느리는 결사대의 완강한 저항을 받아 진군을 못하다가 장군 흡순(歙純)의 아들 반골(盤骨)과 좌장군 품일(品日)의 아들 관창(官昌)의 분전 전사사 격동된 장병들이 죽기를 무릅쓰고 진격함으로써 겨우 백제군을 격퇴하고 당나라 군대와 합류할 수 있게 되지만, 약속된 날을 넘기게 된다.

김유신이 도착하자 소정방은 기일에 늦은 것을 문제 삼아 신라군의 독군(督軍) 김문영(金文穎)을 군문에서 목 베려고 했다. 이에 맞서 김유신은 군중들에게 "대장군(소정방)은 황산의 전투를 보지도 않고서 기일 늦은 것을 죄 삼으며 하는데, 우리는 죄 없이 목을 당할 수 없다. 반드시 먼저 당군과 일전을 거른 후에 백제를 격파하겠다."고 선언하고서, 마침내 도끼를 곧추세워 잡고 군문에 버티고 서 있는데 노

기가 뻗쳐 머리털이 솟고 허리에 찬 보검을 막 뽑을 듯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소정방의 우장(右將) 동보량(董寶亮)이 소정방의 발을 밟으며 "신라군이 장차 변고를 일으킬 것 같습니다."라고 일깨워 주었다. 이에 소정방도 할 수 없이 김문영의 죄를 풀어 주고, 신라군과 함께 진격하여 백제의 도성을 포위했다.('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 무열왕 7년 조)

이처럼 신라와 당이 연합군을 편성해 백제를 공격하여 멸망시키는 역사적인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양군의 사령관 사이에 긴박한 기 싸움이 있었다. 소정방은 김유신과 신라군의 의기를 꺾어 신라군을 손아귀에 넣고자 기일 늦은 것을 구실로 삼았다. 김유신도 이를 간파하고 도끼를 곧추세워 잡고(杖鉞) 분기탱천하는 모습으로 군문에 버티고 서 오려 당군과 결연히 일전을 겨루겠다는 자세를 보

김유신과 군인정신

를 간파한 무열왕과 신하들은 결연히 대비 태세를 갖추어왔다. 이를 확인한 소정방은 신라 침공을 포기하고 의자와 및 신료 93인과 졸병 2만 명을 포로로 잡아 풀아갔다. 소정방이 포로를 바치자 당나라 황제가 "왜 신라까지 정벌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소정방은 "신라는 그 군주가 어질고 백성을 사랑하며, 그 신하는 충성으로 나라를 섬기고 아래 사람의 뒷사람 섬김은 부형과 같이 하니 비록 소국이라도 도모할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삼국사기' 권42, 김유신전조)

당시 백제를 침공한 것은 전적으로 백

제를 멸망시켜 고구려의 배후를 확보하는 것이었지만, 이와 대군을 보낸 김에 할 수만 있다면 신라까지 점령한다는 것이 원래의 계획이었던 것 같다. 당시 신라는 언제든 접수할 수도 있는 가버른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 조정이 이 같은 전략을 세웠을 것이다. 그러나 김유신의 단호한 태도와 처신은 소정방으로 하여금 신라가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국가임을 인식하게 하였고, 그래서 소정방은 원래의 계획을 포기하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김유신의 처신과 자세는 천사백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지금 다시 돌아보아도 참으로 당당하고 훌륭하다.

최근 퇴역한 고위 장성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전사자관련 반향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위풍당당한 장군들의 자세는 아닌 것 같다. 미군의 주둔이 불가피하고 그래서 전시에 작전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판단이 현실적으로 타당할지 몰라도 그런 주장은 정치가들에게 맡겨야 한다. 대신 군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가와 민족을 지켜내고야 말겠다는 결연한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국민들로부터 국가사회의 안보에 대한 책임을 위임받은 것은 미군이 아니라 국민이고, 당신들은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다.

(고려대 역사교육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심각한 자산 양극화 이대로 방치할건가

서울과 지방의 집값 차이가 커지면서 매매가격이 지역에 따라 26배까지 벌어지는 등 자산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값은 3.3m(1평)당 1천794만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특히 강남구는 3천300만원으로 가장 낮은 전남(305만원)의 10배를 웃돌았다.

전남 지역 아파트 10채를 팔아도 강남구의 아파트 1채를 살 수 없다는 얘기가 다. 전남과 강남지역간 아파트 가격차이는 6년 전 8.5배에 비해 더욱 확대됐다. 해가 갈수록 자산 양극화가 심화된 것은 인구가 몰린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반면 낙후지역은 상승 폭이 적었기 때문이다.

국토균형개발 정책이 흔들리면서 지역간 부동산 격차는 앞으로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현 정부 들어 수도권 일대에 대한 공장 신축이 허용되면서 지방 경제는 더욱 위축되고 있다.

자산 양극화는 지역 갈등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수도권과 낙후지역간 경제 격차는 국민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소득과 자산 양극화의 악순환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강남을 비롯한 집값 급등 지역의 거품을 제거하고 지방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도록 세제 혜택 등 부동산 거래 활성화 정책을 펴야 한다. 전국을 대상으로 한 획일적인 대책보다는 지역별, 소득 계층별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수도권 규제 완화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수도권은 이미 초과 밀집상태. 면적은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한 반면 전 인구의 48.5%, 대기업의 92%, 제조업의 56.6%, 금융의 67%가 집중돼 있다. 이로 인한 교통혼잡비만 12.4조원에 달하는 등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이 국민의 세금으로 낭비되고 있다. 수도권은 넘쳐나고 지방은 공동화되어서는 국가 경쟁력이 강화될 리 만무하다.

사이버테러 국가차원 대비책 시급하다

지난 7월 시작된 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으로 그동안 우리가 자랑했던 'IT 강국'이 허명(虛名)에 지나지 않았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DDoS의 새로운 공격 징후가 12일 현재 나타나지 않고 있는 등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이번 사태는 상황을 장악하고 통일된 대응을 이끌 컨트롤 타워 구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우선 과제를 새삼 각인시켰다.

정보화시대에 사이버테러는 핵무기보다 더 심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사이버테러의 피해는 국가중추기관에 서부터 첨단기기, 국가통신망, 금융망, 공장 등 모든 것을 파괴할 만큼 가공스럽기 때문이다. 소수의 악의적인 개인이나 집단이 한 나라의 기반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사이버테러 대비에 너무 소홀했다. 이번 사태에서 정부는 실제에 대한 개념과약도 정확하게 하지 못한 채 국정원, 방통위 등 관계부처가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내용을 내놓아 혼란만 부추겼다.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국가정보원, 방통위, 행정안전부 등이 피해 정보를 공유하지 못한 채 능동 대응을 한 것이다. 정치권은 뜬금 없는 '사이버 북풍' 논란이나 말이며 '강건사 불구경' 하듯 했다. 오죽했으면 이번 사이버테러 전쟁에 '의병(義兵)만 있고 관병(官兵)은 없었다'라는 말까지 나왔겠는가.

지난 2003년의 인터넷 대란을 겪고도 DDoS 공격에 우왕좌왕하며 제대로 막지 못한 IT강국의 불명예와 무능·무의식은 또다시 되풀이돼선 안 된다. 사이버세력은 더 이상 가상공간이 아니라 실제상황이 됐다.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네티즌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사이버 테러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이버전사(戰士)가 될 각오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 사이버테러 컨트롤 타워 발족 등 국가차원의 대비책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법조 칼럼

김민정



필자는 광주로 이사온지 얼마 되지 않아 무척 산뜻하다고 느껴진 몇가지 경험들이 있다. 그 중 하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아이들이 "안녕하세요"라고 먼저 인사를 한다는 것이다. 얼굴을 전혀 몰라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집 어른이라는 이유로 기특하게도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그러다 문득 깨닫게 된 것은, 정작 나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 인사를 먼저 건네지는 않는다는 점이었다. 말을 못한 뒤 후회하는 일은, 필자의 경우 주로

가장 안타깝고 답답한 사람들은, "알아서 챙겨주겠지" 하며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야 후회하는 이들이다.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소송당사자 본인들이다. 의사 재판장은 전문가이기에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제3자이고, 일반론적인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해당 환자나 소송당사자를 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송당사자는, 자신의 소송 준비를 위해, 절차 진행이나 법률 적용에 관하여 이곳저곳 많이 알아보는 것

질문할 용기

병원에서 일어나곤 했다. 의사 선생님 앞에만 앉으면, 스스로 긴장한 나머지 "네, 네, 감사합니다"만 하다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아이 엄마로 다년간 경력의 쌓이다 보니, 지금은 아이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나 자신의 생각도 말할 수 있게 되었다.

필자가 담당하고 있는 민사재판을 생각해 보면, 재판장과 대면하는 소송당사자와 의사 앞에 앉아 있는 환자의 처지는 비슷하면서도 매우 다르다. 일단, 다급하고 긴장된 상태에서 전문가를 앞에 두고 질의응답을 해야 한다는 점이 공통된다.

다만, 환자는 질병치료라는 같은 목적을 가진 의사에게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질문하면 되지만, 소송당사자는 조금 다르다. 즉, 소송당사자는 승소가 재판의 목적이지만, 재판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판이 목적이어서 서로 같이 않으므로, 당사자의 요구에 재판장이 응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보기에, 환자, 소송당사자 중에서 공통적으로

이 좋다. 절차 자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사건의 실체와 무관한 곳에서부터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사건의 실체에 관하여 특별하거나 이상한 부분은 강조하여 표현해야 한다.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대신 이야기해 줄 리가 없고, 결국 재판장이 끝까지 모든 상태에서 재판이 끝나버릴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전부 법정에 나와 비로소 하면, 재판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재판부에서도 충분한 안내나 지휘를 못하게 되므로, 사전에 인터넷 등으로 정보도 검색해 보고, 준비서면, 참고서면 등의 형태로 작성해 미리 법원에 우편으로라도 제출해 줄 것을 부탁하고 싶다.

공급할 때,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는, 용기를 내 물어 보는 사람이 결국에는 실수할 가능성이 적어진다. 비록 상대방은 승소가 재판의 목적이지만, 재판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판이 목적이어서 서로 같이 않으므로, 당사자의 요구에 재판장이 응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보기에, 환자, 소송당사자 중에서 공통적으로

기고

송광운



기상청이 올 여름 밤잠을 설치 정도의 무더위가 이어질 것이라는 일기예보를 내놨다.더위는 필수적으로 냉방기 가동률을 높이고 전력소모량을 증가시킨다. 해마다 순간 최대전력사용량이 바뀌는 이유도 바로 폭염에 따른 냉방기 가동이 원인이다. 정부는 올 여름 최대 전력수가 10% 오르면 국내총생산(GDP)은 0.13%~0.14%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원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가인상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생활에 큰 부담이 된다. 미래세대 생명의 원천인 물자정도 급박스럽게 돌아간다. 최근 다행스럽게 큰비가 내려 제한급수의 고통에서 벗어났지만 우리나라는 UN이 정한 물부족 국가다.

벌써 10년전부터 영국, 벨기에 등과 함께 물이 부족한 나라로 지목돼 물절약이나 물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도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4억의 물이 부족하고 2011년부터는 매년 20억의 물이 부족할 것이라 전망이다.

그런데도 광주시의 1인당 수돗물 사용량은 2005년 310ℓ, 2006년 312ℓ, 2007년 323ℓ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우

리는 아직 물부족의 심각성을 실감하지 못하지만 머지않아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식수가격이 휘발유가격보다 더 비싸질 것이라는 경고는 물전망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다.

살아가는데 전력이나 석유, 물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취급할 수 없는 필수 자원들이다. 이들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나 소비절감노력은 우리를 뿐만 아니라 후세들을 위해 반드시 생활화하고 실천해 나가야한다. 미 시사주간 타임지는 올해 신년호에서 불, 석유, 원자력,

에너지 절약과 '탄소 포인트'

석유소비 세계 7위의 에너지 다소비국가다. 1997~2007년까지 10년간 에너지소비증가율이 한국은 2.73%로 일본의 0.05%, 독일의 0.04%에 비해 5~7배나 높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유가가 10% 오르면 국내총생산(GDP)은 0.13%~0.14%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원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가인상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생활에 큰 부담이 된다. 미래세대 생명의 원천인 물자정도 급박스럽게 돌아간다. 최근 다행스럽게 큰비가 내려 제한급수의 고통에서 벗어났지만 우리나라는 UN이 정한 물부족 국가다.

벌써 10년전부터 영국, 벨기에 등과 함께 물이 부족한 나라로 지목돼 물절약이나 물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도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4억의 물이 부족하고 2011년부터는 매년 20억의 물이 부족할 것이라 전망이다.

그런데도 광주시의 1인당 수돗물 사용량은 2005년 310ℓ, 2006년 312ℓ, 2007년 323ℓ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우

신재생에너지에 이어 에너지 절약을 '제 5에너지'로 꼽았다.

정부에서도 에너지 효율 향상을 녹색성장의 기본 축으로 삼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해온 탄소포인트제를 전국 희망자처단체로 확대한다고 한다. 탄소포인트제는 전기·수도·가스를 절약하면 감축된 이산화탄소량 만큼 포인트를 주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지난해부터 작곡 추진 하고 있는 북구는 참여세대 8천803세대로, 광주시 전체 2만327 참여세대의 43.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탄소은행 감량시범아파트 지정, 빛고를 기호지킴이 운영, 탄소은행 코디네이션 사업 등을 착실히 추진해 온 결과 광주시의 탄소은행 평가에서 최우수수로 선정됐다. 에너지도 절약하고 감축량 만큼 인센티브를 받는 탄소포인트제는 경제적 이득 못지않게 친환경 운동에 동참하는 것이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전력난 고유가, 물 부족이라는 악재로 불안한 여름이 걱정스럽다. 에너지 절약과 효율성제고에 적극 나서자.

(광주시 북구청장)

광주시 침수피해 부르는 '하수구 쓰레기 투척' 삼가야

회사에서 동료들과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가던중 도로변 하수구 뚜껑 위에서 악취와 쇠파리가 들끓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자세히 보니 근처 식당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버렸는지 주변이 음식쓰레기 파리와 날벌레가 들끓은 것이었다.

또 도로변 하수도 빗물받이에 담배꽂초 등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상태에서의 하수는 악취를 유발하고, 강우시 배수지역에 따른 침수로 이어져 교통장애는 물론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 하수관 속의 쓰레기는 하천수질과 하류지역 상수원을 오염시켜 우리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도 한다.

하수도를 인체에 비유하면 소화기능에 해당한다. 소화기능이 부실하면 어딘가 질병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하수도의 기능을 이모양으로 만드는 것은 하천과 지하수질 악화를 초래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망가뜨리는 꼴이다.

▲홍명호·광주시 서구 풍남동

영화 상영시간 지체 시키는 '극장 광고' 지나치다

오랫만에 아내와 함께 극장에 갔다. 오후 8시 30분에 상영하는 영화였는데 저녁 식사를 마치고 8시 20분쯤 들어가 자리를 잡았다. 영화가 10시 30분쯤 끝나면 11시에 열차를 타고 친척집에 가기로 돼있었다.

영화 예고편이 나오고 잠시 후 휴대폰 광고를 시작으로 삼주광고, TV광고, 무선인터넷 광고 등이 이어졌다. 곧 끝나겠거니 했지만 계속 이어졌다. 그러다 켈렌이 광고까지 하고 상영에 들어간 시간은 예초 상영예정

시간은 15분이나 넘긴 8시45분이었다.

상영시간을 어기고 시작한것도 화가 나지만 열차표를 예매해놓았기 때문에 너무 조마조마했고, 시간을 맞추지 못할만큼 영화가 늦어지면 영화를 다 보지 못하고 도중에 나와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날 열차를 놓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한 건 관객들은 영화를 보러 간것이지 광고를 보러 가는게 아니다. 제발 영화시간은 지켜주시 바란다.

▲홍명호·광주시 서구 풍남동

※홍명호·광주시 서구 풍남동 ▲노정숙·광주시 서구 농성동

無 等 鼓

국내 신종플루 환자가 400명을 넘어 서면서 우리가 커지고 있다. 주말인 11일에만 52명의 환자가 새로 발생했다. 해외에 나가기도 않고, 주변에 환자도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첫 지역사회 감염(2차 감염) 추정 사례까지 발견됐다. 일본, 중국, 미국, 호주 등과 마찬가지로 호흡기를 통한 유행 가능성을 점치는 경고 음도 나오고 있다. 일부 시·도는 환자를 치료할 격리병실이 부족해 아우성이다.

비슷한 시기 여러 대의 컴퓨터를 일제히 동작하게 하여 특정 사이트를 공격하는 '분산서비스 거부'(D DoS)가 온 나라를 '총성 없는 전쟁'의 공포로 몰아넣었다. 나흘간 계속된 사이버 공격은 대형히 11일 소멸돼 주요 사이트들이 정상화됐다. 하지만, 공격에 이용당한 개인 컴퓨터들의 시스템 손상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전 국민을 긴장시키고 있는 이 두가지는 모두 바이러스의 침투에 의한 것이다. 신종플루는 변이를 일으킨 새로운 인플루엔자 A(H1N1)이라는 생물학

적 바이러스 때문이고, DDoS는 공격을 유발한 악성코드가 불특정 다수에게 뿌려진 컴퓨터 바이러스라는 점이 다를 뿐이다.

두 바이러스는 작동 방식도 비슷하다. 숙주에 기생해 자기 복제를 하고 변형을 만들어 나간다는 점에서, 생물학적 바이러스의 숙주는 사람을 비롯한 동물의 몸이고, 컴퓨터 바이러스의 숙주는 컴퓨터다. 양자는 또 새로운 숙주를 찾아 전염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따라서 예방법도 유사하다. 신종플루는 손을 자주 씻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는 것이 최상책이다. 컴퓨터 바이러스 역시 위험해 보이

이는 이메일 등에 손대지 않고, 다중이 들어 정상화됐다. 하지만, 공격에 이용당한 개인 컴퓨터들의 시스템 손상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전 국민을 긴장시키고 있는 이 두가지는 모두 바이러스의 침투에 의한 것이다. 신종플루는 변이를 일으킨 새로운 인플루엔자 A(H1N1)이라는 생물학

/정후식 사회1부장 who@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淸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書慶完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업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92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F A X 222-800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매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치부 2200-634	여론제작부 2200-679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사회1부 2200-612	사진부 2200-69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